

곁에 있다. 서로.

당고 있다.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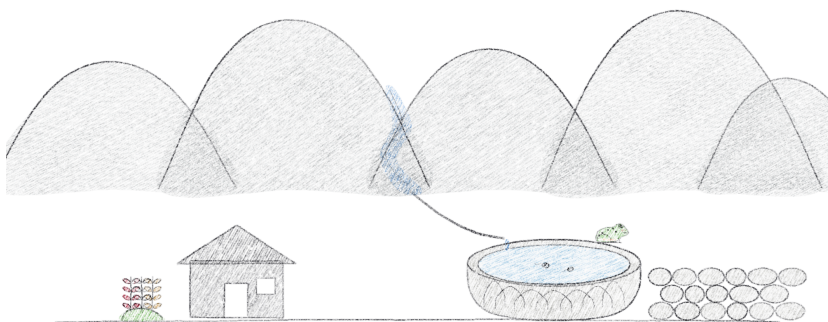
마크, 석련지 내 곁

KIM CHUL

마크, 석련지 내 곁

차 례

Chapter 1	내가 사는 곳은 돌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5
Chapter 2	나는 늘 개구리들을 관찰한다.	13
Chapter 3	어제 ‘바라봄과 보임의 관계’에서...	21
Chapter 4	봄은 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하고...	29
Chapter 5	언어 없는 대화. 가능할까?	33
Chapter 6	석련지 작은 연못 안과 밖에는...	37
Chapter 7	오늘 마크가 보이지 않았다.	47
Chapter 8	다른 개구리들은 여전히 달아났다.	53
Chapter 9	석련지 동그렇게 파인 돌멩이에는...	59



Dec. 1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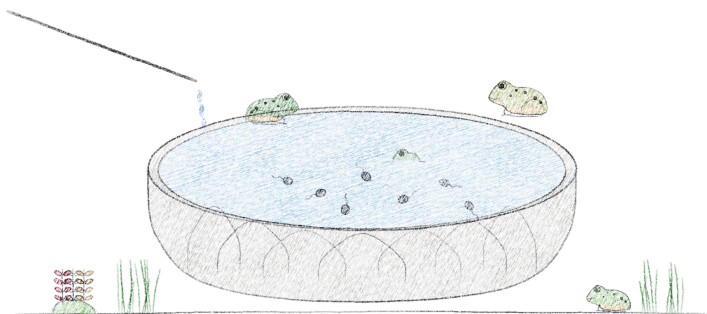
APL

Chapter

1

내가 사는 곳은 돌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깊고 물 많은 계곡도 있다. 그래서 계곡물을 집으로 끌어서 꽃들이며 작물이며 마시게 한다. 그리고 돌담 한쪽에 장정 네다섯 사람도 들기 힘든 무게의 돌 물통이 있다. 예스러이 석련지¹라 부르고 싶은 그곳에도 계곡물이 졸졸 흐르게 해 놓았다.

1 석련지石蓮池: 물을 담을 수 있게 만든 연꽃 모양이나 동그런 모양의 돌물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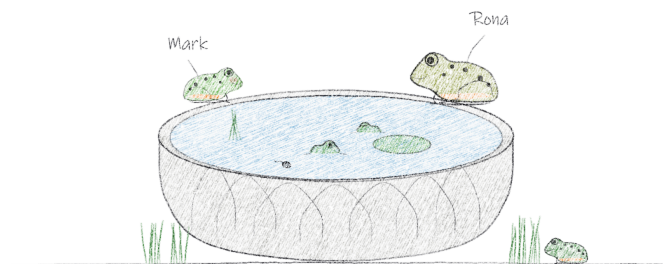


Dec.10, 2025

AK

어느 때부터 개구리들이 와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다.
몇 년째 그렇다. 겨울 빼고는 올챙이도 바닥에서 꼬물거리고
성체가 된 개구리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저 먼 곳 계곡에서 흘러든 물이 집 석련지에 숨결을 불어넣어
준다. 석련지 안과 주위에는 두어 종種 개구리, 식물들과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서로를 보며 제각각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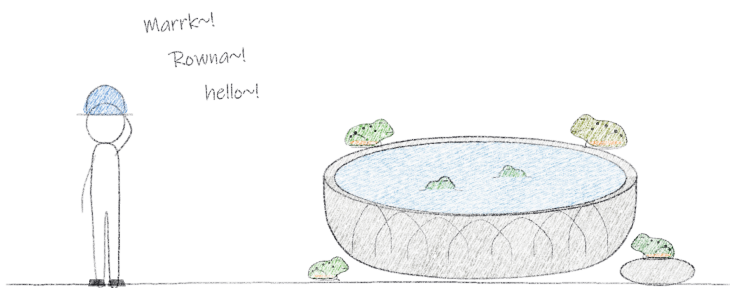


Dec. 10, 2025
AKS

나는 석련지를 바라보며 사람의 세상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살 만한 곳에 모여 자리를 잡고 서로 다른 생각에도 같은 생태 속에 적어도 표현상 '더불어 살고 있는' 이들.

적어도 3, 4년 봐 왔던 석련지 개구리들 중 무당개구리과로 보이는 둘에게 어느 때부터인가 이름을 붙여 주고 늘 살핀다. 마크 그리고 로나. 마크는 수컷, 로나는 암컷. 로나가 좀 크고 마크는 오히려 귀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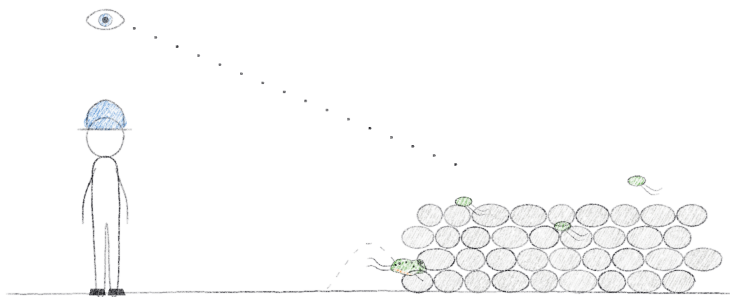
로나는 사실 지금까지도 다른 개구리들과 매번 헛갈린다. 그런데 마크는 확실히 안다. 그렇게 아는 사이가 된 이야기가 이 글의 내용이다.



Dec. 10, 2025
JPS.

“말~크! 로우~나! 헬로우~!”

늘 반응도 대답도 없다. 대신 5, 6마리 개구리들이 눈을
꺼벅이며 물에 떠 있든 돌 위에 앉아 있든 그러고들 있다.
그러다 도피, 회피.



Dec. 1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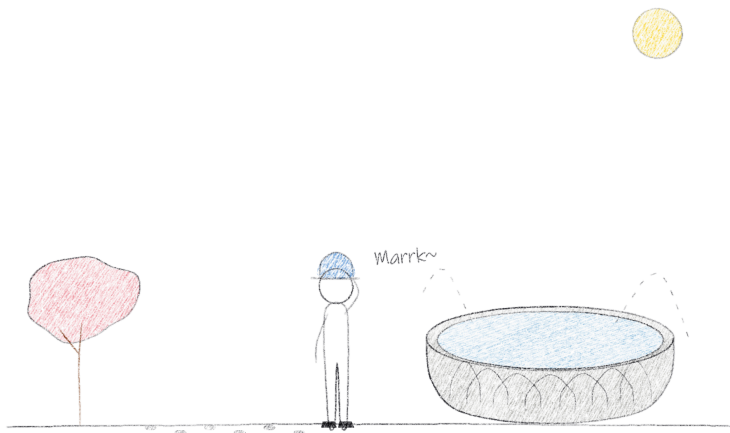
af
12.

Chapter

2

나는 늘 개구리들을 관찰한다. 내가 가까이 가면 돌 틈에 숨기도 하고, 발자국 소리에 반대쪽으로 도망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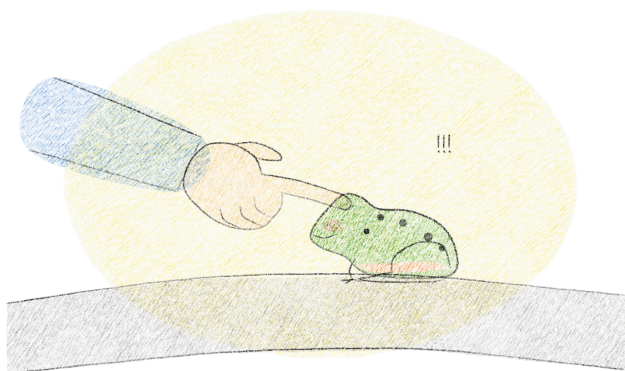
나는 그들을 보지만, 그들은 나를 보지 않는다. 보는 이 따로, 보이는 것 따로따로다. 하지만 정말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났다. 그 따로따로들 간에 서로를 알아주는 느낌 경험!



Dec. 10, 2025

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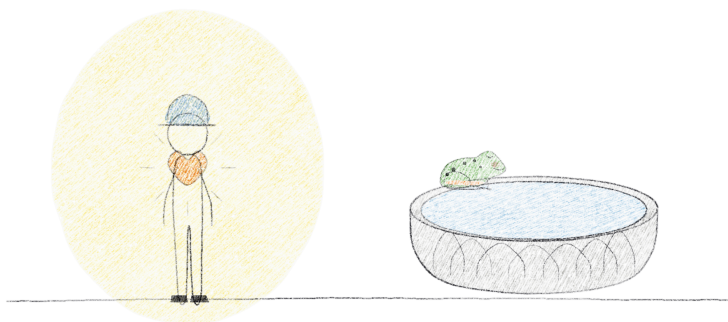
이번 해였다. 봄 어느 날 오후 마크를 부르며 석련지로
다가갔다. 다른 개구리들은 이미 열에 열, 모두 도망갔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인사나 하고 보고 갈 생각이
전부였다.



Dec.10, 2025

1/2

그런데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말~크!” 하면서 평소
때 쓸 일 없는 왼손 검지로 석련지 둘레 위에 앉아 있던 마크를
쓰다듬었다.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마크가 가만히
있었다!!! 머리 위에서 조금 아래까지 까끌까끌한 피부가
손가락 끝에서부터 느껴졌다. 왼손 검지가 이렇게
섬세했었구나 놀라면서 몇 번이고 이름을 부르며 강아지
어루만지듯 했는데 계속 머리를 대고 있었다. 죽었나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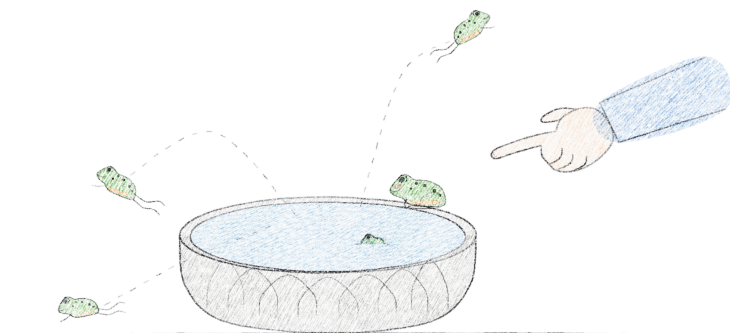


Dec. 10, 2025

1/2

그러고는 뒤로 물러섰다. 갑자기 가슴이 이상하리만큼
따사로워지는 것이 봄볕이 내 몸뚱이 안까지 뚫고 들어온
듯했다.

어떤 조화인지 모르겠지만 마크가 나를 위험하지 않은 존재로
알아주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도 확신에 가깝게. 마크는
미동도 없는 자세로써 내 존재를 수용했다. 이런 세상에!



Dec.1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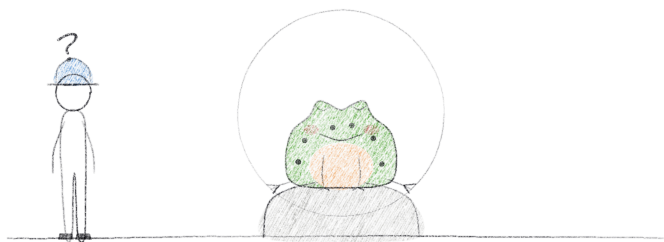
af.

Chapter

3

어제 ‘바라봄과 보임의 관계’에서 ‘만짐과 만져짐’ 그리고 ‘알고 싶음과 알고 있음’으로의 놀라운 전환을 경험했기에 오늘도 정중하게 손가락을 폈다.

다른 개구리들은 여느 때처럼 도망치기 바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재미로 잡든 잡아서 먹으려 하든 포획하려 하고, 개구리를 포함한 물고기나 가재는 생존을 위해 죽기 살기로 도망하고 숨는다. 서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묻고 찾을 것도 없다. 적어도 내가 태어난 이후로는 늘 그래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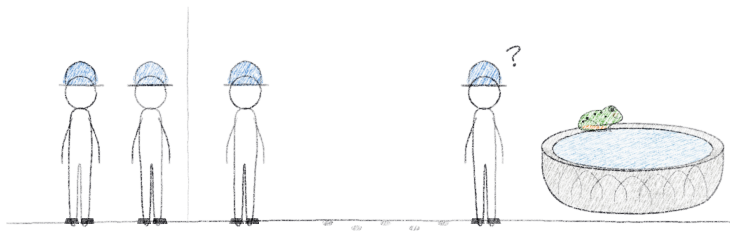
Dec. 10, 2025

dk.

그런데 마크 이름을 부르면서 물속에 가까이 가면 마크를 찾을 수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잠시 움직이다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개구리가 보이면 그가 바로 마크였다.

‘포식자 계통의 포유류를 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 아니면 마크가 양서류계에서 노자의 무아無我 상태에 이른 무념-무상-무덤덤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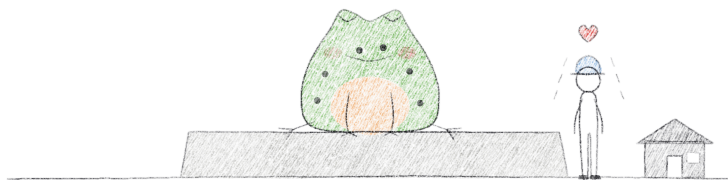
둘 다 아니라 생각한다. 시작은 우연이고, 본능은 피하는 것이고, 본성은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허나 그렇게 됐다. 그렇게 서로 했다.



Dec. 10, 2025
sk.

사람 관계를 생각해 본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많은 이유로
인해 서로 마음의 손길을 거부하며 살아가는가. 또 이유가
딱히 없어도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생태 상태는 어떠한가...

그래서 마크에게 가서 물어봤다—



Dec 1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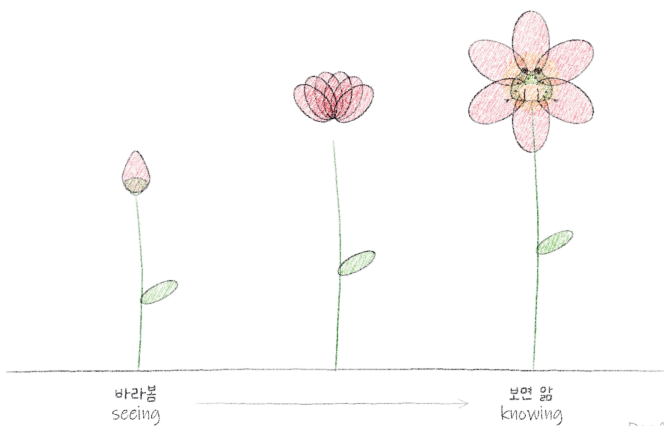
afg

“마크, 너는 왜 도망도 안 가고
만저도 가만히 있어?”

그는 새까만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을 감고 하늘 향해
고개 들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 내 뜻이 전달될 리가
없다. 관스레.

“마~알크!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잘 지내자!”

다시 마크 머리 쓰다듬고 집으로 들어왔다. 쓰다듬은 것은
나인데, 내가 기분 좋아하며 전율하고 있었다.



Dec.1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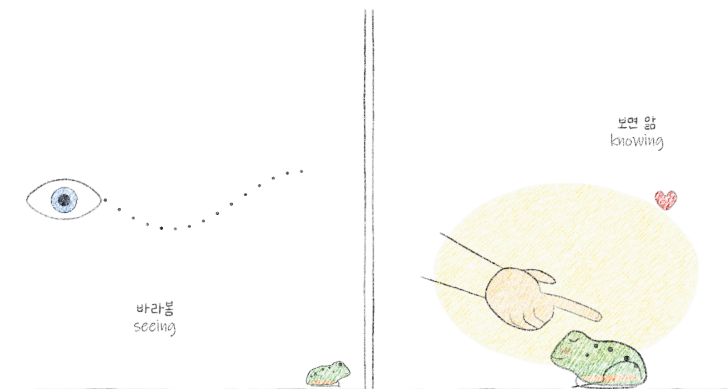
작가

Chapter

4

봄은 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하고 사실 우선은 꽃눈이 띄는 계절이다. 마크를 알게 되기 전에 모르기는 몰라도 엄청난 수의 개구리를 이곳저곳에서 보았을 것이다. 보고 잡기도 하고, 보고 그냥 지나기도 하고. 뭐 이 정도.

꽃눈 트고 그 자리에 꽃이 활짝 핀다.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자연의 신비하고 오묘한 현상이다.



Dec. 10, 2025

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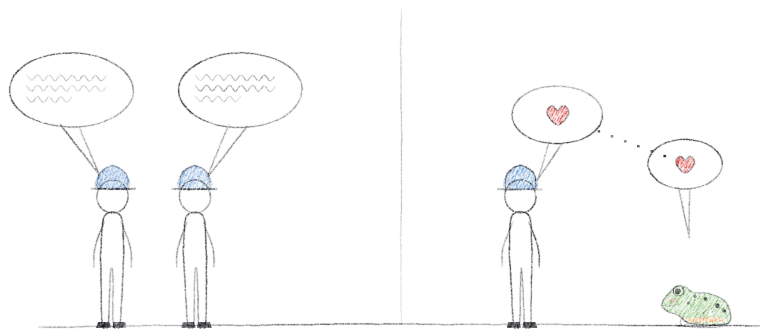
봄seeing에서 앎knowing.

마크는 나에게 개구리계系의 만개한 꽃이다. 서로 간 보고
보이는 무한히 무관한 거리가 사라졌다. 곁에 있다. 서로.
닿고 있다. 서로.

마크는 내가 좀 안다고 할 수 있는 첫 개구리이다.

앎은 삶이다. 누군가를 보기만 하고 알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와는 어떠한 관계 형태이든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이일
것이다.

반면 서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둘 간에 손길이 있고
어루만짐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앎이고 삶이다.



Dec.1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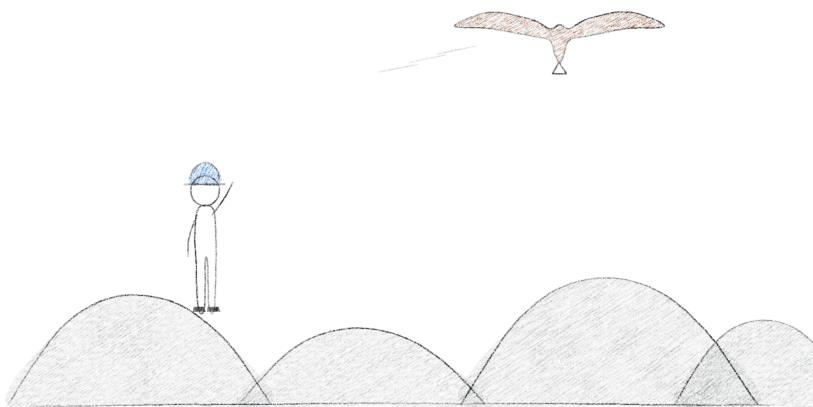
afg.

Chapter

5

언어 없는 대화. 가능할까? 나에게서는 그러하다. 언어 있는 단절. 가능할까? 물론 이것도 비일비재非一非再, 가능하다. 요즘 세상에서는 능히 그러하다.

마크와 나는 단 한 마디 말도 나누지 못한다. 통하는 언어가 없으니 말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묘수妙手이다. 말이 없고 대화가 불가능하다 해도 교감과 교통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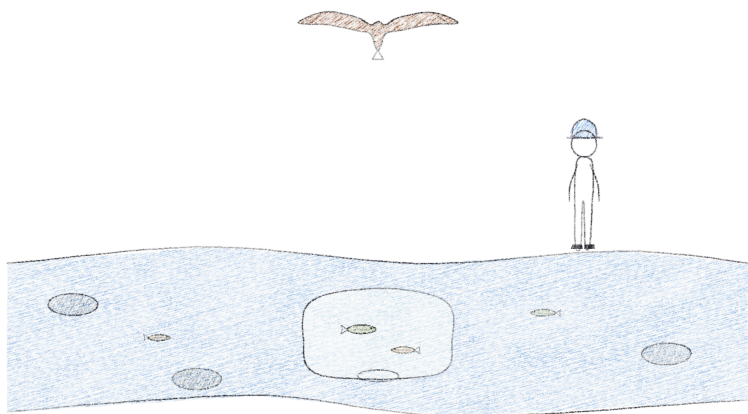
Dec. 10, 2025

4/12

나는 늘 석련지 곁으로 가 내 곁 마크를 부르며 찾고, 마크는
내 입소리와 발소리로 나를 안다. 거둡거둡 신기하고 신비롭고
신성하기까지 하다. 만지면 머리를 대 준다. 참 좋다.

우리는 말 안하고 살 수가 없나
날으는 솔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느덧 내게 다가와
헤아릴 수 없는 애기속에 나도 우리가 됐소
바로 그때 나를 보면서 날아가 버린 나의 솔개여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잃어버린 나의 얼굴아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지쳐버린 나의 부리여

이태원, 〈솔개〉



Dec. 1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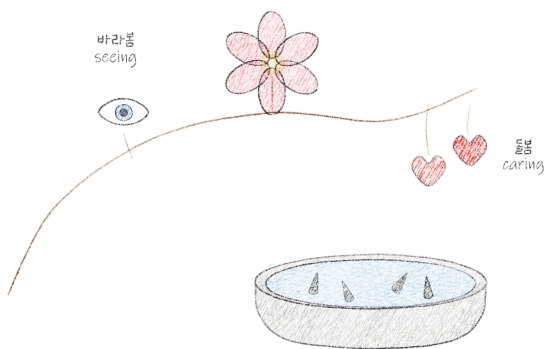
af

Chapter

6

석련지 작은 연못 안과 밖에는 마크 말고도 10마리 이내의 다른 개구리들 그리고 곤충들의 유충들, 식물들, 생물들이 공생한다.

마크를 알고 나서 마크 친구하면 좋겠다 싶어서 집 앞 개천에 어항을 놓고 버들치며 피라미며 물고기를 잡아넣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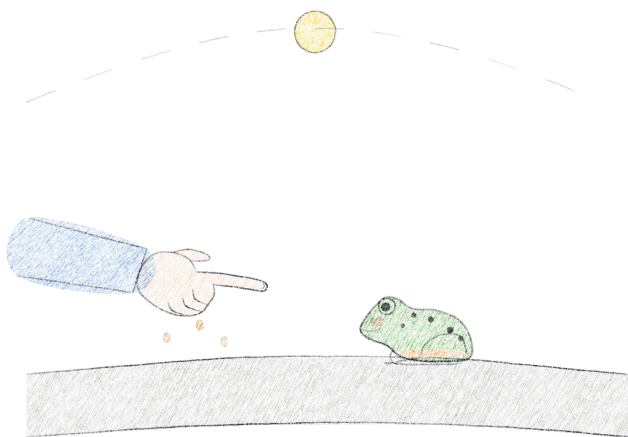
Dec.10, 2025

아름.

그 초물입력으로 자칫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다슬기
채취를 바위바위 해서 뿌려 주었다. 생전 처음이었다.
계곡물이 계속 흐르고 있지만 다슬기가 석련지 돌 표면을
더 깨끗이 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매일 보이고 보여지는 사람들 속에서
매일 바라보고 알아 가는 사람이 된 느낌.

만짐과 만져짐. 그 이후로 봄에서 앓이 피었다. 그리고 앓에서
호감과 호의가 자연스럽게 열매되었다. 봄seeing이 돌봄
caring으로 변형되고, 감coming이 정감feeling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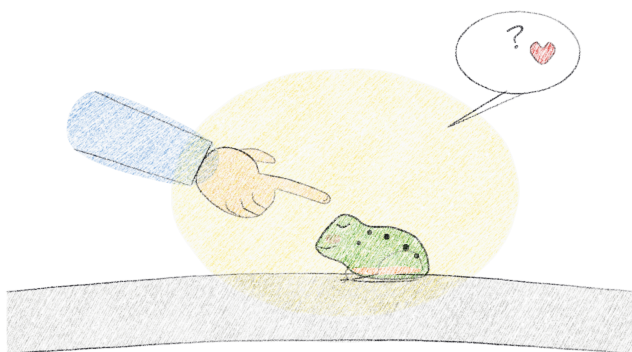


Dec. 10, 2025

af.

야생 개구리들의 피하고 도망가는 습성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개구리들의 피부는 약하기 때문에 유분이나 다른 성분들이 묻어 있는 사람 손은 기피해야 한다. 사람 역시 개구리를 손으로 만지면 피부의 독성으로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서로 이런 두 종種이 하루에 잠깐씩 그러나 매일 일상으로 서로를 보고 느끼고 교감한다. 마크는 모르겠지만, 나는 마크를 좋아한다.



Dec. 1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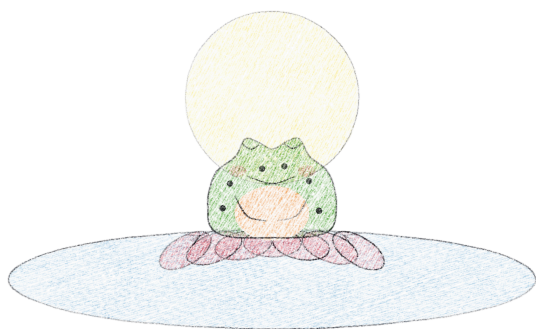
AK

이유 없이 그저 이렇게 좋아함이다. 말은 원래 안 되니
표현으로만 해 본다. 좋아함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드러난다.

며칠에 한 번씩 공연스레 묻는다—

“마크, 이렇게 하면 좋아?

그냥 참고 있는 거야? 좋지? 난 참 좋다!”



Dec. 10, 2025

g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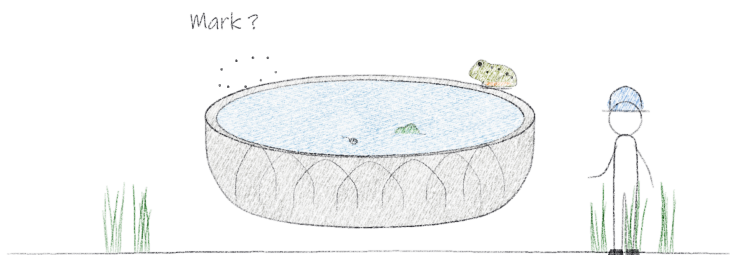
마크는 종교가 없다.

하지만 늘 니르바나Nirvana² 상태.

마크는 싯다Siddha³.

² 니르바나Nirvana: 산스크리트어·팔리어.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번뇌와 집착이 완전히 소멸된 해탈에 이른 경지.

³ 싯다Siddha: 산스크리트어. 인도 철학, 요가, 불교에서 널리 쓰이는 개념으로, 성취한 자, 완성된 자, 깨달음을 이룬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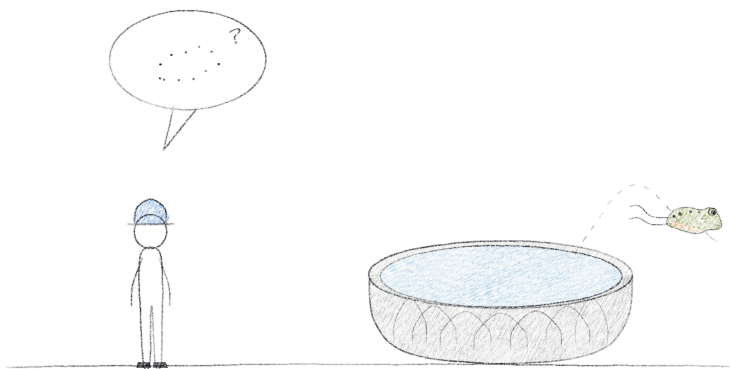
Dec. 10, 2025

gfg.

Chapter

7

오늘 마크가 보이지 않았다. 가끔씩 서로 못 보는 날이 있었지만, 며칠 동안 안 보인 적은 드문 일이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물속을 헤아리면서, 돌 틈까지 들춰 보았다. 석련지 주위 풀들을 휘저었다. 그러나 마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Dec.1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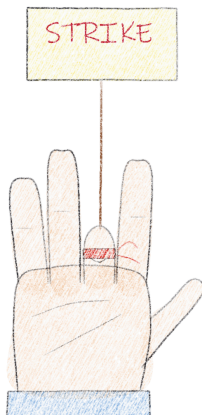
afz.

마크의 부재에 석련지는 계곡물이 떨어지고 물이 고여 있는
돌연못 그리고 개구리들과 올챙이들이 있는 장소였다. 곁으로
지나다니며 힐끗 볼 뿐 곁에 가까이 갈 필요까지는 없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대상이 부재하니 장소만 존재했다. 혼자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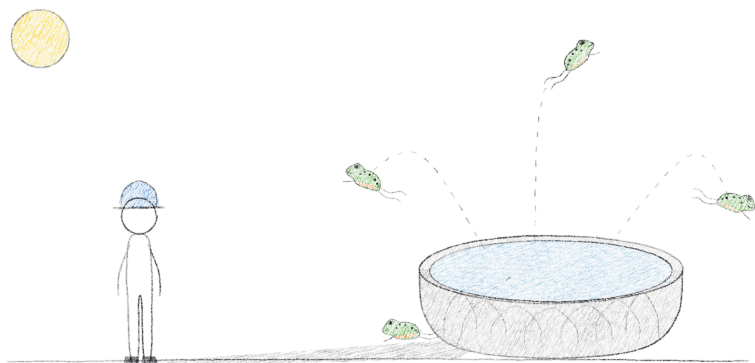
‘마크가 어딜 갔나? 개구리가 3, 4년은 산다는데 사고를
당했나? 아니지. 오겠지.’

로나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 말 안 통하는 것은 기본이고,
로나는 내가 자기 근처에 가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만
한다.



Dec. 10, 2025
AK
PZ.

왼손 중지가 전면 파업했다. 며칠 내내.



Dec.1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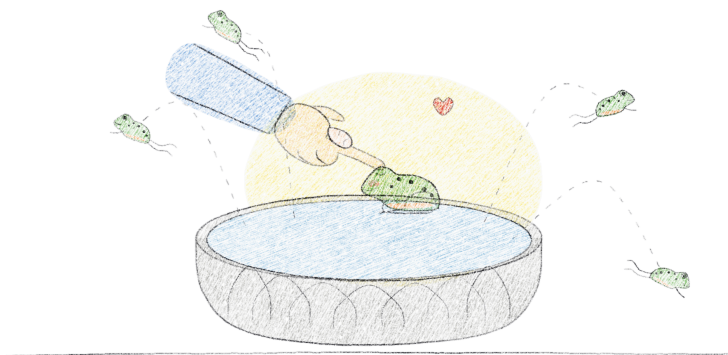
afg.

Chapter

8

다른 개구리들은 여전히 달아났다. 내 그림자만 스쳐도
흩어지고, 곁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모든
생명체의 상수常手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온 생물이 본능적으로 상수를 쓰며 생존하는 석련지이기 때문에,
경계의 종種이 아닌 생각의 곁이 되는 현상은 도리어 자연의
묘수妙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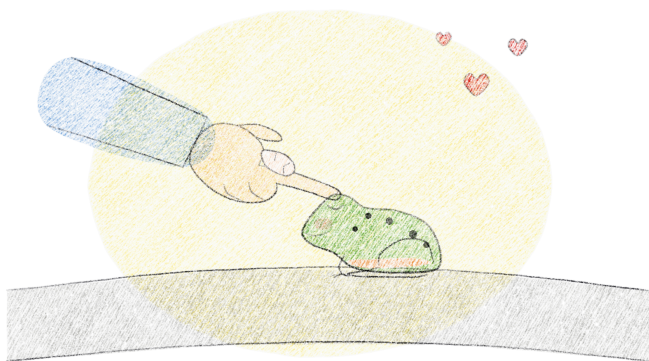


Dec.10, 2025

afg

내가 가까이 가자 온갖 개구리들이 제멋대로 폴짝 댄스
중인데, 저기 보였다. 마크.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듯. 마크가
석련지에 돌아왔다. 원래 여기 다른 곳에 잠시 혼자
있었는지는 몰라도 찾아도 안 보이던 마크가 나타났다.

“마크! 어디 갔다 왔어? 여기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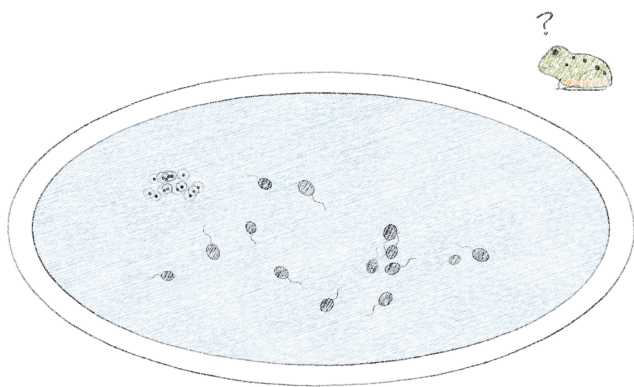


Dec. 10, 2025

afg.

조심스럽게 다가가 왼손 중지 끝으로 마크 머리를 쓰다듬었다.
잠깐 움찔대더니 이내 가만히, 아니 느낌 있게 손길을 받고
있었다.

“말~크! 참 좋다! 이 느낌! 너도 좋지?” 내 곁님이
돌아오셨다. 장소로의 석련지가 아닌 교감 통로로의 손길에로.



Dec. 1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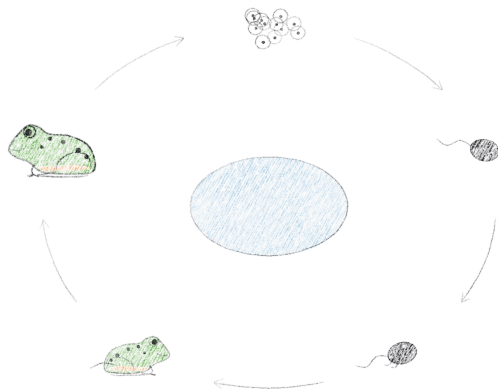
AP

Chapter

9

석련지 둥그렇게 파인 돌뿔에는 겨울을 빼면 거의 늘 수많은
울챙이들이 있다. 엄청 큰 머리가 조그만 꼬리를 흔든다. 그렇게
밀바닥을 헤엄쳐 다닌다.

그 애들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 우선 ‘개구리하고
어떻게 저렇게 안 닮았는가? 부모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른 생각은 ‘곤충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 인간까지도, 생명은
이렇게 기이奇異하고 기묘奇妙한 과정으로만 생성되고
순환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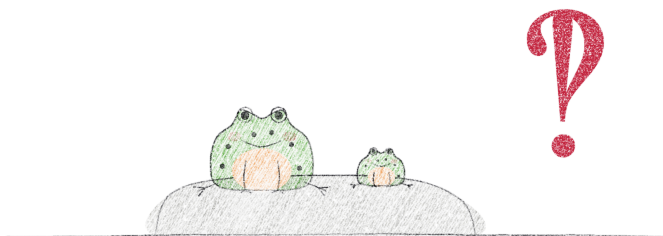


Dec.10, 2025

af
12.

뭉글뭉글한 투명 알덩어리. 물속 아가미로 호흡하며 사는 물고기
같은 올챙이 시절. 없어질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올
것들이 나오면서 어느새 새끼 개구리가 되어 물에서 나온다.
다음은 수륙양용⁴ 성체 개구리가 되어 몇 년을 살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4 양서류兩棲類: 물과 몸, 양쪽을 오가며 서식하는 동물. 성체 개구리의 경우 폐와 피부로 호흡한다.



Dec. 10, 2025

AK

오늘 까끌까끌 마크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나의 진심과 기대
담긴 부탁을 했다—

“마크, 누가 봐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 듯한데... 너 가기
전에 너 딱 닮은 마크 주니어 낳고 가! 약속?! Mark!
인터로뱅interrobang?⁵⁾”

5 인터로뱅interrobang?: 물음표(?)와 느낌표(!)를 한 글자로 겹친 문장부호. 묻는 마음과 외치는 마음을 한꺼번에 담는다. 1962년 미국의 광고인 마틴 K. 스펙터Martin K. Speckter가 고안했으며, 이름은 라틴어 *interrogatio*(물음)와 인쇄공들이 느낌표를 부르던 속어 *bang*을 합친 말이다. ‘약속?!’처럼 물음과 놀람이 함께 터질 때 쓴다.

언어 없는 대화. 가능할까?

나에게는 그러하다.

언어 있는 단절. 가능할까?

물론 이것도 비밀비재非一非再, 가능하다.

얕은 삶이다.

봄seeing에서 얕knowing.

마크, 석련지 내 곁